

ESG 정책의 대응과 동향

2024.11.25.

기후경제학자 :Dr. 안영철



사단법인
한국기후경제사회연구소
KICES
Korea Institute
of Climate, Economics and Society

목 차

1. 연구배경
2. ESG 의의와 정책동향
3. ESG 동향조사 및 분석
4. 결론: 정책제언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가. 논리적 배경

기후위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인간에게 닥치는 위험

위기발생요인과 피해영역이 일치하지 않음

범지구적 대응이 필요하면서 대응의 공정성이 갈등 요인

물리적 리스크

- 자연재해, 인프라 장애, 산업재해, 인명피해 초래
- 실물경제의 이익에 기반하여 발생

전환적 리스크

- 친환경 정책의 시행
- 친환경 기술개발의 촉진
- 산업규제

이행 리스크

- 경제적 혼란과 금융손실 위험
- 실물경제에 직접 영향
- 자본주의의 변화

1. 연구배경

나. 전환적 배경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범지구적 대응

- UN주도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 파리기후협약

1992, 리우데자네이로에서
ETS 프로세스의 시작

2015 파리협정: COP21에 의
해 결정된 신기후 체제를 위한
제안

2015년 12월 파리에서 채택, 2
016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
서 서명, 11월 4일 공식 발효



1997 교토프로토콜

1. 연구배경

나. 전환적 배경

1. 로마 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 (1972년)”

인구, GDP, 식량, 고갈되는 자원, 환경 오염 등 글로벌 변수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작성

발간 후 Beyond the Limits (1992)와 Limits to growth: The 30 Year update(2004)로 재발간

컴퓨터 시뮬레이션 첫 연구 모델(1972년 ~ 2100년) 12개의 예측 시나리오 결과를 제시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1972. 6. 5. 스톡홀름),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 발간

2. 1997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의정서

의정서에 인준한 국가들은 이산화탄소를 포함 6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비관세 장벽을 적용 - 배출목표 모니터링

(COP3)-

시장기반 메커니즘 구축: 국제배출권 거래, 클린 개발 메커니즘, 공동구현

Outcome:

UNIPCC

문제점: 평가 및 거래의 적합성과 선진국에 대한 탄소절감 특혜

1. 연구배경

나. 전환적 배경

1.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범지구적 대응 필요성: UN주도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파리협정 등을 유발

2. 파리협정,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6차 특별보고서 채택, 신기후체제를 위한 제안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하고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제출을 의무화

3. EU 공급망 관리 의무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준비)

대상: EU 역내 대기업 및 상장사 및 고위험 중소·중견기업 그리고 금융기업 대상
ESG 관리 원칙에 대한 협력사 등

방식: ESG 이행여부 장기검증 요구 및 다국적 기업의 자사 제품 생산에 대한
사회·환경적 리스크 공급망 전체에 대해 전사적 관리

4. 한국정부의 대응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3)'의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수립 요구,
지역의 기후대응 역량강화 및 산업계 저탄소 전환 맞춤 제도 추진

1. 연구배경

나. 전환적 배경

3. 파리기후협정 전과 후 (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

- LT-LEDS(long term – low GHG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 산업화 이전수준 대비 기후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
- GHG 배출량은 2025년에 정점에 도달하도록 규제
- 향상된 투명성 프레임워크(ETF: Enhanced Transparency Framework)를 수립
- 기술개발과 이전: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개선과 GHG 배출 감소
- 역량강화: 개발도상국의 기후관련 역량 강화에 중점. 선진국들의 지원을 요청
- 2021년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글래스고)에서 6년간 협상해 온 국제탄소시장 지침 타결
- 협정이후 저탄소 솔루션과 새로운 시장 형성, 보다 많은 국가들이 Net-Zero 목표를 수립
-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경제부문(전력 및 운송)에서 경쟁력을 갖추

3. 국제재정정책

- 기후행동 및 지원에 대한 투명성 체제 강화와 각국의 능력에 따른 유연성 인정
- 2020년부터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UN에 제출
- 2024년부터 기후변화 완화, 적응조치 및 제공 또는 수신된 지원에 대한 조치를 보고
- 수집된 정보는 Global stocktake(재고조사)에 반영
- 국가간 지원방안: 재정적 기술적,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한 국가에 대한 프레임워크 제공
- 기후재정: 완화를 위하여 선진국이 약소국에 재정지원, 각 국가는 자발적으로 재정지원

2. ESG 의의와 정책동향

2. ESG 도입과 정책동향

가. ESG 의의

1) ESG 본질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판단하기 위한 투자자의 기업평가 기준

- ESG는 투자금융시장 용어
- ESG는 투자자가 기업에 요구하는 "정량적 수치 즉, 지표로 표현한 비재무적 정보"

2) ESG 평가의 이유

- 기업에 대한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① 소비자: 기업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력 요구 (ESG 평가 결과에 따른 소비의사결정)

② 정부/세계: 글로벌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간 합의 및 제재

-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 자본"의 안전과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 글로벌 : ESG는 투자금융에만 사용

◎ 한국 : ESG를 기업운영측면에서 투자자 대응을 위한 내부평가기준으로 활용

→ ESG 글로벌 평가기준을 역으로 한국의 기업평가를 위해 활용

→ 한국은 ESG를 경영 패러다임으로 오용

2. ESG 의의와 정책동향

가. ESG 의의

3)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용어의 등장

- 정의 :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투자에 있어서 기업이 갖추어야 할 3가지 핵심요소

→ 상품(제품, 용역)에 의한 기업 재무적 성과 외 환경 영향과 사회적 영향의 비재무적 성과 지표

Environmental | 환경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 과정에서 **환경적 요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Social | 사회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 과정에서 **사람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최대화**
(기업의 이해관계자)

Governance | 지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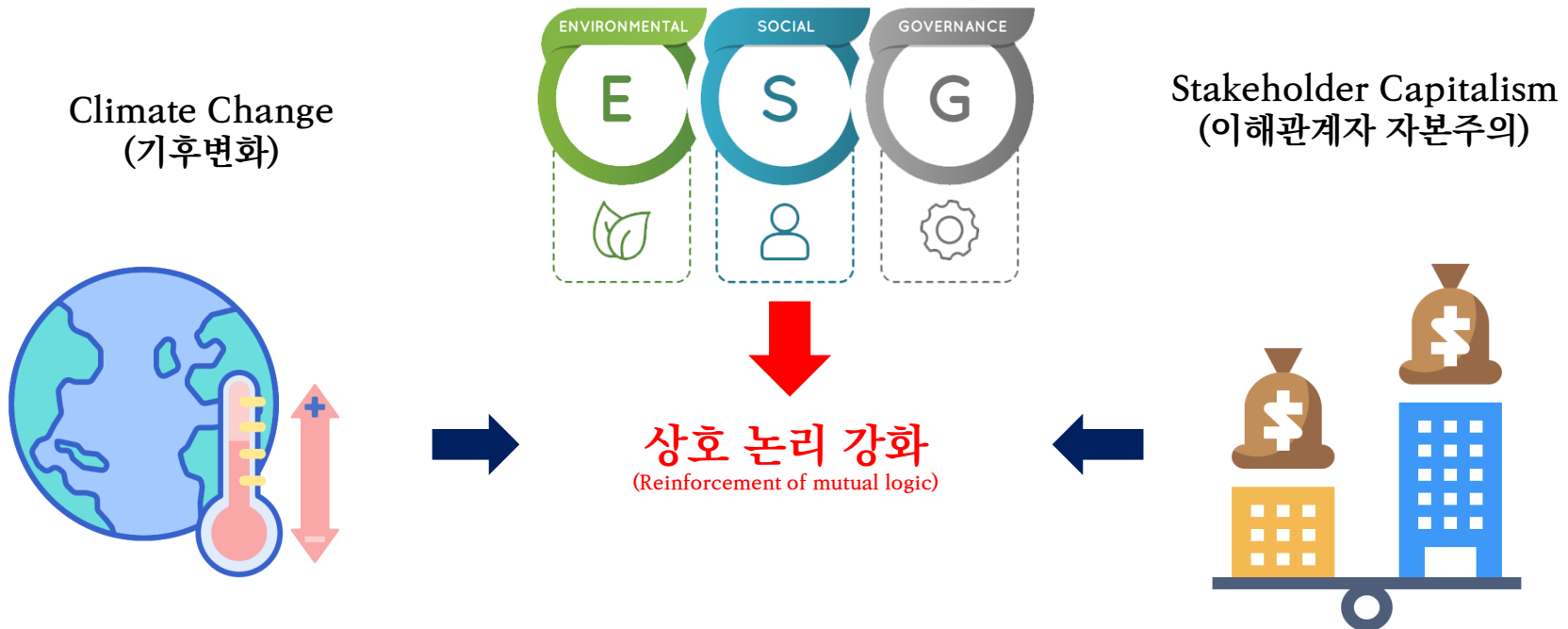
기업의 비즈니스 **경영 의사결정** 전 과정에서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기업경영방식**

2. ESG 의의와 정책동향

가. ESG 의의

3)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용어의 등장

- 2004년 UNGC(UN Global Compact)와 20여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 'Who Cares Wins'에서 처음 등장. 현재 기업과 자본시장이 처한 성장 한계에 대한 솔루션으로 성장
- 유엔글로벌콤팩트는 1999년 1월, 코피 아난 제7대 UN 사무총장이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창하여 2000년 7월 뉴욕 UN본부에서 정식으로 발족



2. ESG 의의와 정책동향

나. ESG 도입

1) UNGC(UN Global Compact):

- 발족: 1999년 1월, 코피 아난 제7대 UN 사무총장이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창하여 2000년 7월 뉴욕 UN본부에서 정식으로 발족
- 역할: 전 세계 기업들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운영 및 경영전략에 내재시켜 지속가능성과 기업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그 실행을 국제기구에 보고하도록 장려하는 최대의 기업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범주	10대원칙
인권	원칙 1 : 국제적으로 선언 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원칙 2 : 사람이 인권 유린에 연루되지 않았는지 확인 해야 한다.
노동 기준	원칙 3 :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해야 한다. 원칙 4 :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반드시 철폐 한다. 원칙 5 : 아동 노동에 대한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폐지를 수행한다. 원칙 6 : 고용 및 직업에서의 어떠한 차별도 철폐 한다
환경	원칙 7 : 환경 문제에 대한 예방 적 접근을 지원한다. 원칙 8 : 환경 책임을 증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수행한다. 원칙 9 :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장려한다.
반부패	원칙 10 : 기업은 강요와 뇌물 수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해야 한다.

2. ESG 의의와 정책동향

나. ESG의 도입

기후환경 위기로 인한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

1) ESG 관련 글로벌 기준의 제도화 - 새로운 ESG 이슈들의 법규화·제도화 경향 가속

국제사회 관심:

Sustainability and ESG

- ISSB(국제지속가능공시기준위원회)의 IFRS S1(일반 요구사항), IFRS S2(기후 관련공시)
- EU CSRD(기업 지속가능성보고지침)

온실가스배출 규제:

Paris Agreement

- 유럽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독일 NZIA(탄소 중립산업법),
-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공시규칙

기후기술 발전:

Technological Solution
Renewable Energy

- 독일의 기후보호 프로그램 2030,
- 일본의 GX(녹색전환) 추진 전략, 프랑스의 LTECV(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 등

2. ESG 의의와 정책동향

나. ESG의 도입

기후환경 위기에 따른 왜곡된 대응

2) 기업의 그린 워싱(Greenwashing, 위장 환경주의)

- Net-Zero를 위한 국제 제재, 기업에 대한 기후행동 요구와 압박

: 기업의 기후행동 압박을 회피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각종 행위

GreenHushing: 기업이 기후환경관련 조사 회피 위해 의도적으로 지속가능성 목표, 진행사항의 비공개 및 과소 보고하는 행위

GreenRinsing : 기업이 ESG경영 목표를 상황에 따라 수시 변경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

GreenShifting : 기업이 환경파괴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GreenCrowding : 개별 기업들이 연합하여 비(非)친환경적 행동을 숨기거나 지속가능한 정책을 느리게 실천하고자 하는 행위

2. ESG 의의와 정책동향

나. ESG의 도입: 기후환경 위기로 인한 기업 경영환경 변화

- 3) 생물다양성과 자연자본 공시가 ESG 실무의 차세대 이슈로 부상
 - 2022년 쿤밍-몬트리올 협약(GBF,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채택
 - 2023년 TNFD(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e Disclosure) 공표
 - : 생물다양성 크레딧 시장(Biodiversity credit market) 개설
- 4) 공급망에서의 ESG 책임을 포함한 포괄적 책임 강화
 - Scope3 탄소배출(금융배출량 포함), 공급망에서의 자연자본/생물다양성 훼손책임, 제품폐기물 관련 생산자책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등 포괄적 책임체계(CRF, Comprehensive Responsibility Framework)강화
- 5) 국내투자시장에서 거버넌스 논의 본격화 (Korea discount, Value-up)
 - 한국 상장기업 주식 가치의 유사 외국 상장기업 비해 낮은 평가 원인 조명
 - :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 저조한 수익성·성장성,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회계 불투명성,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 등

자연자본

지질, 토양, 공기, 물 및 모든 생물을 포함하는 세계의 자연자원을 의미

이전에는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무료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

자본에 대한 경제적 개념을 자연환경으로 확장

자연에 대한 자본의 투입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와 상품으로 가공되는 것을 의미함

2. ESG 의의와 정책동향

다. 대(對) 기업투자 패러다임 변화

1) BCG(Boston Consulting Group, 2023) Report

- For Financial Institutions, Nature Is the Next Frontier (기관투자자의 새로운 투자시장)

① 금융기관 : 자연관련 위험대비 전략 필요 (40조 달러 이상 경제적 가치 자연으로부터 의존)

② 인간활동으로 지구 서식지 제공능력 한계인식 : 생태계에 대한 가치평가

③ ECB(유럽중앙은행) : 유로지역 영업활동 은행대출 75%가 최소 한 종류 이상 자연관련 위험 노출

④ 금융기관 자연관련 전략 : 넷-제로 목표 도움, 포트폴리오 위험감소, 새로운 가치 창출 기회 획득

2) BlackRock, (CEO, Laurence Douglas Fink)

-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자산운용회사: 매년 투자자 연례서한(2020)을 통해 회사의 투자방침 제공

: 2020년 기후변화 리스크, ESG 투자 결정 공표

: 모든 포트폴리오 ESG 기준 강화, 사내 프로세스 ESG 통합, ESG ETF 2배 이상, ESG펀드 iShares 지속 출시

: 2022년 대외적 ESG 언급자제. 단,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관련기업(Eco유니콘) 투자확대 시사

2. ESG 의의와 정책동향

라.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과 자연투자 연계

1) 새로운 금융시장: 자연투자

- 자연투자는 최근 자발적 배출권 거래 시장의 핵심자본 원천
- 2023년 6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자연에 기초한 850개 프로젝트 등록
 - : 대부분 숲, 농지 및 해안 생태계 가치에 초점
 - : (MSCI 분석) 자발적 배출권 거래 시장 자연투자 규모 2012~2022년 160억 달러, 2030년 200억 달러 예상
- 주요 투자자 : 자산소유주 or 타 기관투자자(42%), 기업투자자(29%), 펀드매니저(17%)
- 자발적 배출권 거래 시장을 통한 자연투자는 새로운 금융 유망시장
- 단, 무결성 프로젝트(High-integrity Projects)구분 필요

2) WEF 2024 보고서 (Investing in Natural Capital 2024)

- 자연 자본에 투자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필수적.
- 글로벌 GDP의 절반 이상이 자연과 생물다양성에 의존.
- 그러나 숲, 물, 토양과 같은 필수적인 천연 자원을 포함하는 자연 자본은 상당히 감소.
- 이 보고서의 목표는 자연 자본에 대한 투자 방법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

2. ESG 의의와 정책동향

라.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과 자연투자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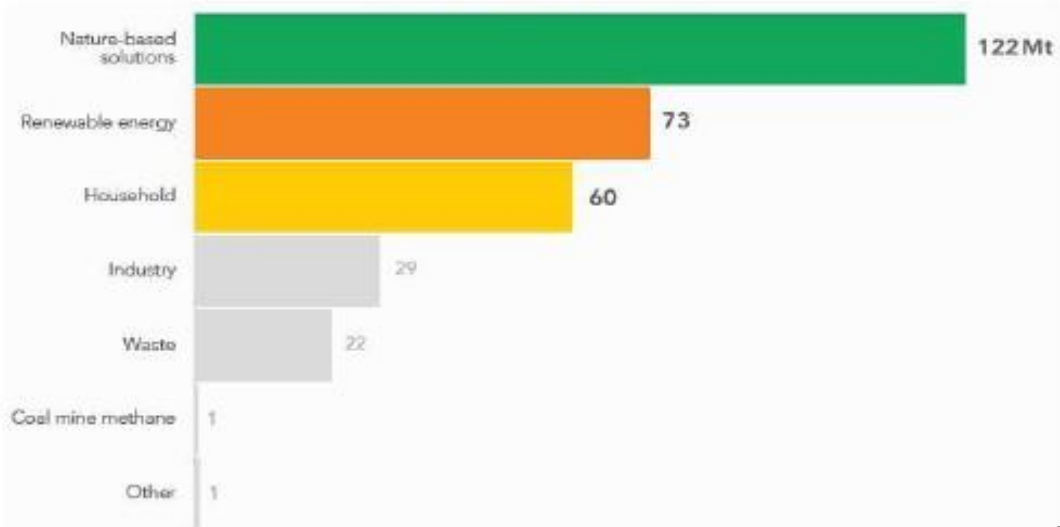
3) 탄소배출권 중에서 자연에 기반한 솔루션(Nature based solution)의 거래가 40%가량 차지

〈 자발적 탄소시장 프로젝트 등록 유형 〉

프로젝트 등록 유형	설명
산림 및 토지이용	-REDD+, ARR, IFM 등 · REDD+ : 삼림 벌채 및 황폐화로 인한 배출 감소(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ARR: 조림, 재삼림 및 식생(Afforestation, Reforestation, and Revegetation) · IFM : 삼림 관리 개선(Improved Forest Management)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에 중점을 둔 모든 프로젝트와 발전 부문 메탄 사용 프로젝트
농업	-농지 및 목초지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유형
운송	-교통 수단의 효율성 향상 측면에서의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
가정/공동체 장치	-요리 및 깨끗한 에너지를 위한 개별 가구 및 지역 사회의 의존도를 저감시키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화학공정 산업제조	-산업 공정 효율성 향상 및 산업 응용 분야에서 사용 및 생성되는 온실가스를 포집/제거하는 프로젝트
에너지효율, 연료전환	-발전 및 배전 효율성 향상 및 배출 강도가 낮은 연료로의 전환하는 프로젝트
폐기물처리	-메탄 포집 및 제거, 석유와 플라스틱 재활용 등의 프로젝트

자료 : Ecosvstem Marketnlace(2023) 참조

〈 탄소배출권 공급 비중 〉



자료 : Climate Focus(2024), p.7.

2. ESG 의의와 정책동향

마. 비재무정보 공시강화 : TCFD, TNFD

1) 기후변화에 대한 TCFD(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와 같이
생물다양성과 자원순환에 대한 TNFD(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진행

① ISSB(국제지속가능공시기준위원회)는 IFRS S1, S2의 다음 의제로 **생물다양성 공시** 고려

② TCFD 프레임워크 구조 동일, TNFD 4가지 분야 중심으로 공시기준 제시

: 거버넌스, 경영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설정, 각 분야별 생물다양성 세부지침 및 규제강화

- 기후변화에 대한 UNPRI : 책임투자를 선도하는 UN 기관

거버넌스	경영전략	위험관리	지표·목표설정
•기후변화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거버넌스	•기후변화관련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계획에 미치는 실질적/잠재적 영향 파악	•기후변화관련 위험을 파악, 평가, 관리를 위해 기관이 사용하는 프로세스	•해당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는 지표/감축목표

2) UNPRI의 역할

① ESG 요인의 투자 의미를 이해시키는 것

② ESG 요인들을 투자서명자의 투자와 의사결정에 통합하는 국제적 네트워크 조성하는 것

③ 글로벌 정책입안자와 교류하지만 정부와 관련이 없으며 유엔의 지원을 받지만 일부가 아님 20

2. ESG 의의와 정책동향

바. ESG 개념과 발전과정

1) 전통적 기업성과 :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구조 안정성 등 **재무기반 가치 평가**

- 기업 성장과정 상 발생하는 환경오염, 인권침해 (**재무적 성과향상 시 해당 문제 배제**)

① 유니언카바이드 유독가스 유출 (인도 보팔, 1984년)

② 엑손 발데즈 기름유출 (알래스카, 1990년)

③ 나이키 파키스탄 아동노동 착취 (파키스탄, 1996년)

※ 비정부기구 : 기업경영 환경, 사회적 영향에 대한 다수의 정보공개 요구, 기업공개, 불매운동에 따른
일부 기업 "사회적 책임 보고서" 발간

2) 지속가능성 논의

- UNEP-WCED, Brundtland Report “Our Common Future(우리 공동의 미래, 1987)”

① UN WCED(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노르웨이 수상 브룬트란트 주도로 제출된 보고서

②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개념 최초 정의**

: 환경이슈를 정치적 현안으로 부각

: 환경보전 핵심요소로서 빈곤감소, 양성평등, 부의 재분배 형태로 경제개발 필요 역설

: 환경적 제약이 경제성장의 현격한 제한 → 관련 영향 분석, 광의적 대책, 지속 가능한 발전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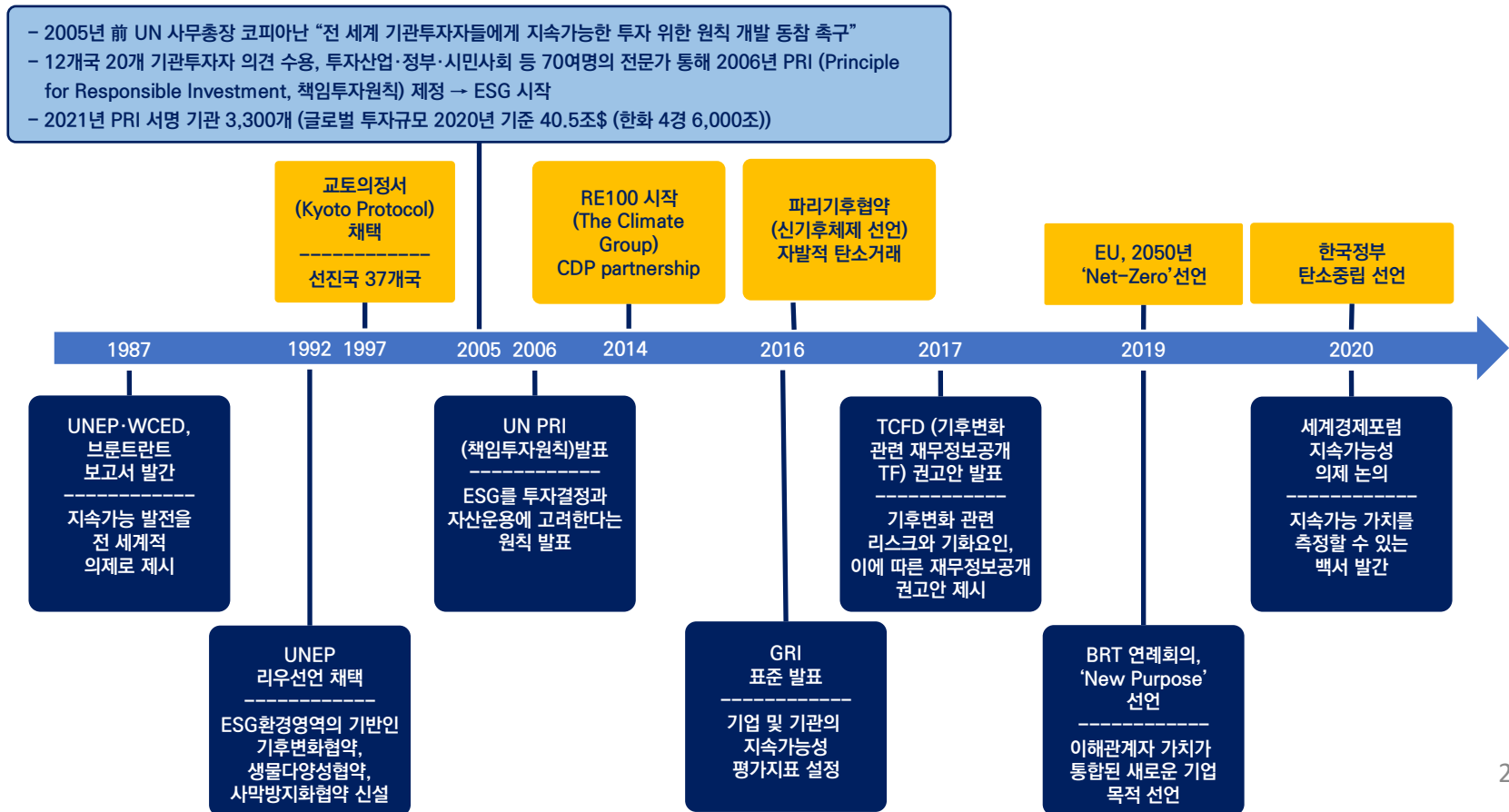
③ 1992년 6월 리우선언, Agenda 21(지속가능한 개발 실현위한 국제행동지침)에 영향

2. ESG 의의와 정책동향

바. ESG 개념과 발전과정

3) “ESG”논의 - ESG 이슈의 자산관리, 유가증권거래 통합 위한 가이드라인 및 권고안 도출 목적

: UNGC, 스위스 연방외무성 공동작성 ‘Who Cares Wins’ 보고서 최초 사용



3. ESG 동향조사 및 분석

3. ESG 동향조사 및 분석

가. ESG 개념과 발전과정

1) 2005년 UNEP FI (UN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글로벌 로펌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저'와 협력 "ESG와 투자기준에 관한 법적 해석 보고서" 발간
: 투자전략 중 환경, 사회, 거버넌스 요소 내재화 방안에 투자 기준 분석 포함,
투자사 수탁의무 규범 정립 → **기관투자자의 ESG 중점 투자 글로벌 표준**

2) 2006년 UN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6개 투자원칙 발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 Rock)포함, 글로벌 주요 투자사 1,750개사 해당 원칙 서명

현재 기업경영 ESG 프레임워크 기반 제시

- 원칙 1: ESG 이슈를 투자 분석 및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통합할 것.
- 원칙 2: 적극적인 소유자가 되고 ESG 이슈를 우리의 소유권 정책 및 관행에 통합할 것.
- 원칙 3: 우리가 투자하는 법인에서 ESG 이슈에 대한 적절한 공개를 추구할 것.
- 원칙 4: 투자 산업 내에서 원칙의 수용과 구현을 촉진할 것.
- 원칙 5: 원칙 구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
- 원칙 6: 각자 우리의 활동과 원칙 구현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

3) **ESG 법안 마련 및 기업정보공개 의무화 등 ESG 제도화 논의 확산**

글로벌 투자기관의 ESG 관점 투자 진행, 기업의 적극적 대응, 성과창출 목적 민간 이니셔티브 결성
최근 세계적 트렌드(리스크 관리): 소비자, 투자자, 정부 등 사회구성원의 관심이 기업생존 핵심요소로 부각

3. ESG 동향조사 및 분석

나. ESG관련 국외 법적 규제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 1) EU는 2018년 3월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에 관한 행동계획(Action Plan o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통해 택소노미를 위한 분류체계 수립 촉구. 2020년 6월 EC 택소노미 규정 발표



자료 : SK E&S (<https://skens.com>)

- 2) 유럽연합은 택소노미(EU Taxonomy) 최종확정 (2022년 7월 11일): 투자대상과 평가수준 결정

- 'EU 택소노미 4대 기본원칙' 조건 전체 충족 시 "택소노미" 인정
- 탄소중립기술 활용, 온실가스 감축 전제 시 제조, 교통, 운송 등 다양한 분야 택소노미 포함
- EU 택소노미에 따른 주요핵심 성과지표 공개에 따른 해당 기업 매년 공시의무 부담

3. ESG 동향조사 및 분석

나. ESG관련 국외 법적 규제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2)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집약적 제품 수입 시 생산과정 배출 탄소량에 따른 관세부과제도



① 탄소세 부과시점 1년 단축 (2025년)

② 적용 품목 및 내재배출량 범위 확대 및 무상할당 폐지단축(2029년)

→ 국내 EU 수출품목 중 CBAM 개정안 우선적용대상 6개 품목 (시멘트,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전기)

→ 전환기(2024년)까지 탄소배출관리 프로세스 재정비, 탄소배출 감축시설 투자확대 등 대응 시급

③ 전환기간 (2023.10~2025.12) 중 배출량 보고의무, 시행기간(2026.1~)부터 배출량 검증, 인증서 구입 및 제출 의무

3. ESG 동향조사 및 분석

나. ESG관련 국외 법적 규제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3)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발효 (2023년 1월 6일)

: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 관련 지침 및 기준 중 가장 복잡하고 광범위한 지침

- EU소재 종속기업 또는 지점 기업 CSRD 공시의무 발생 (공시기준 : ESRS)



-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과 양립을 보장하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계획을 포함
- 지속가능성 목표 및 목표 달성 과정
최소 2030년, 가능한 경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 수치 및 과정 포함
- 지속가능성 관련 행정·경영·감독 조직 구성원의 역할, 전문성
-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 자사와 자사의 공급망 전 영역의 실사 진행 및 절차 공시
실사를 통해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예방·완화·조치하는 등 일련의 전 과정
- 지속가능성 위험과 이에 대한 관리
- 중대성 평가: 보고되어야 하는 정보 식별 과정
- 전반적인 가치 사슬: 운영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 협력 네트워크 및 공급망 포함

자료 : EU CSRD 주요내용 (PwC Korea, 2023)

→ 지속가능성 관련 내·외부적 '이중 중대성' 평가 및 보고, 단계적 제3자 검증

: EU 연계 국내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인프라 구축 중요

2. ESG 의의와 정책동향

아. ESG관련 국외 법적 규제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4)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안 통과 (2023년 3월 6일)

-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체계적인 기후위험 공시법안, 자본시장 중심의 미국 내 모든 기업 적용, 각국 감독기관에 미치는 영향 큼

: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 온실가스 프로토콜 통합, 재무-온실가스 배출량 계량화 공시, 인증범위 구체화 핵심, 기후위험과 사업모델 간 영향, 기업의 위험관리절차, Scope1~2 공시 및 측정절차에 대한 내부통제 규정 포함 (Scope3 점진적 추진)

5)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기준 마련 및 의무화 계획 발표 (2023년 6월 26일)

- 전 세계 ESG 정보공시 표준 'IFRS S1 일반요구사항', 'IFRS S2 기후관련공시' 발표

① IFRS S1 일반요구사항 (General Requirement for Disclosure)

: 투자자 등 기업에 대한 주요 정보 이용자가 기업가치 평가하고 투자결정 시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기회에 관한 중요정보를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 4가지 핵심요소관점에서 공시요구

② IFRS S2 기후관련공시 (Climate-related Disclosure)

: 투자자 등 주요 이용자에게 유의한 기업의 기후관련위험(기후변화의 물리적 위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위험 등)에 대한 정보를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 4가지 핵심요소관점에서 공시요구

3. ESG 동향조사 및 분석

나. ESG관련 국외 법적 규제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6)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이

2024. 7. 25. 발효

- 경과: 2022. 2. 23. EU 집행위원회가 제안, 2023. 12. 14. EU 이사회와 의회를 더한 3자 합의
2024. 3. 15. 상주대표회의의 27개국이 내용 수정을 거쳐 합의, 2024. 4. 24. EU 의회 본회의의
최종표결을 거쳐 통과, 2024. 7. 25. 발효

- 실사 항목: 인권과 환경 분야
- EU 역내·외 기업 모두 적용
- 기업의 매출액·직원 수 등에 따라 그 적용대상 여부와 적용 시점 등이 달라짐
- 적용시점: (최종 대상기업 적용 : 2029년 7월 26일)

구분		2027년부터	2028년부터	2029년부터
역내	직원 수	5천명 초과	3천명 초과	1천명 초과
	순 매출액 (전세계)	15억 유로 초과	9억 유로 초과	4.5억 유로 초과
역외	순 매출액 (EU역내)	15억 유로 초과	9억 유로 초과	4.5억 유로 초과

3. ESG 동향조사 및 분석

다. ESG관련 국내 법규 및 기업경영 영향

1) 한국 금융위원회

- 2023년 10월,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주요국 ESG 공시일정 고려, 2026년 이후 연기)

: 연기 사유

- ① 미국 등 주요국 ESG 공시의무화 지연
- ② 국내 ESG 공시기준(ISSB 기준) 확정지연(2023.6)
- ③ 기업의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필요

- 2024년 4월, 'K-ESG 공시기준 초안' 공개

: ISSB 기준에 따른 글로벌 정합성 확보, 투자자 니즈에 대한 기업 수용 가능성 고려

: 주요내용

지배구조	- 기후 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한 지배구조(Governance)공시 -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의사결정 기구, 경영진의 역할 등에 관한 정보 공시
전략	-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대응 전략 공시 - 기후 기회와 위험요인 식별, 해당 요인이 기업의 사업모형이나 가치사슬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공시
위험관리	-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관리하는 과정 공시
지표 및 목표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요인에 대응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 공시 ① 산업전반 지표 (의무공시) ② 산업기반 지표 (선택공시) ③ 기후관련 목표 및 기타 성과 지표로 구성

자료 : 금융위원회 (2024.4)

3. ESG 동향조사 및 분석

다. ESG관련 국내 법규 및 기업경영 영향

2) 환경부

- 2023년 1월,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추진
 - : 2023년 1월 19일, 민관협업 통한 녹색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목적으로 출범 (녹색산업기업 및 수출정책금융기관 등 33개 기관)
- 2024년 1월, “환경정보 공개제도“ 시행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 8항에 근거, 글로벌 ESG공시기준 정합성 제고방향 개편
 - : 2024년부터(2025년 공시)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온실가스배출량(Scope1,2) 재생에너지 사용량,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재활용 비율, 물 스트레스지역 용수 사용량 공개
- 2024년 4월,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적용 수출기업 컨설팅 사업" 추진
 - ① 대상 : CBAM 대상품목 수출 중소·중견기업 및 수출업체에 중간재 제공 중소·중견기업
 - ② 지원내용 : CBAM제품당 배출량 산정 지원(배출량 산정, 보고 템플릿 등) 및 제품별 배출량 산정 역량 강화
- 2024년 6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위탁거래" 업무협약
 - : 2024년 6월 26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거래소, 코스콤과 업무협약 체결
 - : 증권사 통한 배출권 위탁거래도입, 2025년 상반기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 전 시스템 구축

3. ESG 동향조사 및 분석

다. ESG관련 국내 법규 및 기업경영 영향

3) 중소벤처기업부

- 2024년 4월,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

: 녹색성장 전환으로 중소기업 성장기회 마련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혁신 중소기업 평가지표 ESG 요소 반영)

: ESG 민·관 합동 지원체계 구축

(탄소저감 기술공급, 전문컨설팅 지원, 관계부처 합동 ESG통합 가이드라인 구축)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대기업-협력 중소기업 간 공급망 전체 ESG혁신화

(재무능력 취약 제조 중소기업 해외진출 위한 해외 생산설비 구축, 현지 마케팅, 네트워킹 지원)

- 2024년 6월, "EU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 CBAM 대응 지원방안" 발표

: CBAM 특화지원 (CBAM 대응 인프라,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제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강화)

: 설비전환, 융자보증 지원 : 탄소감축설비 도입, 탄소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 보급 지원, 탄소배출 감축설비 도입 융자, 보증지원

: 법, 제도마련 → 탄소중립 관련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추진

3. ESG 동향조사 및 분석

다. ESG관련 국내 법규 및 기업경영 영향

4) ESG 정책에서의 글로벌 정합성 불일치 문제에 대한 지적

- 그린피스 : 금융위 공시 로드맵 확정 지연에 따른 도입 시점 지연 야기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의무화 명문화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선행 필요

- 녹색전환연구소 : 한국의 무역의존도 68.8%, 글로벌 경쟁력 위한 2026년 기후공시 필요

국내 산업 글로벌 경쟁력 위해 Scope3 포함 2026년 법정 기후공시 필요성 제기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정부의 일관적 의지 필요

국내 IFRS 도입 때와 같이 국제기준 안착 필요, 국내 ESG 금융규모 확대에 따른 도입 필수

- 아시아 기후변화투자자그룹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SASB 기준 준수 권고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후변화 특수성 고려 단~장기간 설정 및 IFRS S2 이행 관한

산업기반 지침에 따른 Scope 3 의무화, 온실가스 배출량의 톤당 가격공시 의무화 필요

- 한국회계기준원 : 글로벌 투자자의 비교가능한 정보제공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공시기준 적용 촉구

기업위주 의견 취합이 아닌 정부, 투자자, 시민단체 등을 통한 조속한 기준제정 반영 필요

시사점 : 글로벌 기후공시에 대한 정부정책의 글로벌 비정합성 문제 우려 심각

4. 결론 및 제언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기후경제사회연구소
KICES
Korea Institute
of Climate, Economics and Society